

명사칼럼

리더의 통찰력(See-Through)

1980년 11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수학할 때 카터 대통령 당선을 두고 했던 로쉬(당시 팩칼터 체어맨을 역임) 교수의 말은 내게 대통령의 1차적 직능은 필히 'See-Through'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새겨주었다.

로쉬는 "대통령은 학문이 깊이가 있든 없든, 지식이 다소 부족하던 본질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1차 직능이 'See-Through' 즉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카터를 두고 침례교 인이고 땅콩 농장주였던 시골사람,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목사님 이상의 성직자 같은 사람이지만 속된 표현으로 '바'나 술집에서 여자들의 손목 한 번을 잡아보지 않았을 사람이라며 불행하게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했다.

따라서 미국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과연 그럴까 했지만 마침내 미군철수가 발표됐다.

주한 야전군 싱글러브 소장으로부터 그 부당성을 항의 받는 전대미문의 항명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이후 전개된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카터의 철군 철회로 일단락되었으나 그 여파는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See-Through'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 될 것인가?

지난날 월남통일 지도력의 원천을 살피기 위해 오랜 동안 호치민을 연구하고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여 얻은 결론은 물욕으로부터의 초월이었다.

지금 호치민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물

품이 호치민의 삶 자체였다. 정글복, 헬멧, 만년필, 정글에서 신고 다녔던 샌들, 그리고 귀 떨어진 안경, 책 몇 권이 이 사람이 남긴 유물의 전부였다. 늘 까맣게 들뜬 작업복과 샌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호치민의 재산이었다. 그래서 호치민의 말 한마디는 국민에게 믿음, 신앙, 신뢰를 주었다. 그의 지도력의 원천은 물욕으로부터의 초월이었던 것이다.

공자의 정치관(政治觀)을 보자. 그는 '政은 正也'라 하였다. 정치는 글자 풀이를 하면 '政'은 바르고 문체가 나도록 해야 하고, '治'는 삼수변(水)에 물 태(台)를 쓴 것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이치다. 이와 같이 정치는 사심 없이 바르고 문체나게 하늘의 뜻을 헤아려가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리로 풀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례로는 포항제철을 성공으로 이끈 박태준 회장을 들 수 있다. 포철의 성공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지만 지난 40년 포항제철의 창업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제철 산업과 함께 해 온 필자의 판단으로는 창업자 청암 박태준 회장의 탁월한 'See-Through' 능력과 '이(利)를 보면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 살펴보고, 위험에 당면하면 먼저 네 생명을 던져라(見利思義 見危授命)'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훈을 구현한 숭선수범이 오늘의 세계적 기업인 포항제철, 포스코의 밑바탕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상환 | 자유지성300인회 공동대표

국정 뉴스마당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한미동맹 견고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월 2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7시간여 진행된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독일 G20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베를린 구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5~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통일-통합을 경험한 독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한편 한·중·한·일·러 양자 정상회담 등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본격 가동해 북핵문제의 해결 공조확인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북한 ICBM 시험발사

국제사회 규탄 이어져 대북제재 강도 높아질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중대 특별보도를 통해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모습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도 7월 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한편 이번 미사일은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의 대응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탄도 더욱 커졌다. 유엔 안보리도 7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발사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지평

한국자유총연맹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